

# 미래가 흐르는 도심 속의 문화공간

서울 태평로 삼성플라자 내 '북 앤 리더스'



태평로 삼성플라자의 '북 앤 리더스'에는 편안함이 있다. 구석구석 놓인 소파와 여러 편의를 제공하는 북 카페 등이 손님들을 끈다.

도심의 부산한 저녁거리를 건다가 불을 밝힌 서점을 만나면 경이롭다. 거리와는 시간의 차원이 다른 것처럼 서가 앞에 선 사람들은 독서에 고요히 골몰해 있다. 서점 앞에서 문득 걸음이 느려지는 이유는 그 시간의 자장에 들어섰기 때문이라. 서울 태평로 삼성플라자 안에 문을 연 '북 앤 리더스' (지점장 이규옥)는 도심 한가운데서 다른 시간대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 편안함이 있는 책방

지난해 11월 27일 문을 연 '북 앤 리더스'에 들어서면 어느 서점과 다른 풍경 몇 가지를 만날 수 있다. 서가를 하나씩 돌 때마다 편안해 보이는 소파가 놓여 있고,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원시 숲 그림, 그 옆의 북카페가 그것이다. 매장도 사람들이 움직이기 편하게 통로를 넓혔고, 매장 가운데 위치한 서가들은 누구나 쉽게 책을 꺼낼 수 있도록 키가 낮다. 판매하는 서점이 아닌 독서공간으로서의 서점을 지향한 결과다. 특히 북카페는 서가에서 뽑아낸 책을 들고 가 읽을 수 있는 곳으로 따뜻한 무료 커피, 도서검색용 컴퓨터, 공중전화, 수신전용 전화기 등을 갖춰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서도 높고 큰 빌딩이 밀집해 있는 태평로에 새로 문을 연 5천7백47평 규모의 삼성플라자 내에 '북 앤 리더스'는 300여평을 점하고 있다. 대형서점 규모에 비하면 작고, 소형서점에 비하면 꽤 넓은, 조금 애매한 규모다. 차츰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공간

문제를 이규옥 지점장은 서점의 전문화로 풀어나가고 있다.

"빌딩 숲에 위치하고 있어 점심시간이나 퇴근 무렵 직장인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비즈니스, 경제·경영 도서를 중점적으로 갖추려 했습니다."

기획코너도 다른 대형서점과는 달리 경영·경제서적으로 꾸미고, 어학·처세·외국잡지·정기간행물·컴퓨터 서적 등 직간접적으로 직장인들에게 유용한 도서들을 다양하게 구비했다. 최근에는 불황기 실용서적의 수요 증가로 이쪽 분야의 매출신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책이 많이 나오지 않아 여러 면에서 위축되어 있습니다. 신간이 많이 나와야 서점을 찾는 발길이 많아집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피부로 실감하고 있는 요즘, '북 앤 리더스'는 그 나름의 전략을 세웠다. 신도시 일부 서점에서 실시하고 있는 책주문배달 서비스가 그것. 최대한의 독자서비스를 통해 독서문화를 확대한다는 서점의 원래 취지에도 걸맞은 기획이다. 태평로 일대에서 주문하는 책은 단 한 권이라도 하루 안에 전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려 하지만 구하기 어려운 책은 이틀 안에 배달한다. 이같은 주문배달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북 앤 리더스의 시스템 때문이다.

"모회사인 한양출판주식회사가 갖고 있는 각 서점과 네트워크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갖춰놓은 장서는 6만종 정도지만 구입할 수 있는 도서는 국내 최대 구

모인 셈입니다."

빠르고 방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현대인들의 요구에 발맞춰 조만간 시내 다른 서점들과도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생각이다. 주문과 재고관리에 착오가 없도록 첨단 전산시스템도 가동하고 있다. 주문배달 서비스는 주로 직장인들이 회사부서에서 당장 필요한 경제·경영서쪽의 주문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주문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낙관적이다.

또 하나의 변화는 주말 가족 단위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행사다. 평일 고객이 주로 직장인인데 반해 주말 고객은 쇼퍼나 왔다가 들른 가족들로 차별화되기 때문이다. 저자 사인회 등 독자와 저자들이 만나는 행사를 열고 곧 구경가도서관매를 실시할 생각이다. 교보나 종로 등 대형서점이 기획하는 각종 행사에도 동참할 계획.

## 네트워크 시스템에 주문 배달 서비스도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북 앤 리더스'의 특징이랄 수 있는 북카페가 위기를 맞았다는 사실이다. 책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아 당분간 북카페에 계산되지 않은 책을 들고 가지 못하도록 안내팻말을 붙였다. 강제적인 통제는 하지 않지만 추이를 보아가며 북카페 운영을 재개하려고 한다. 미래지향적인 문화공간을 표방했던 서점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기에 궁리가 많다.

"서점은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변화해야 합니다. 더이상 서점은 '상점'이 아닙니다."

출판사나 서점같이 책을 다루는 곳이 겪는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도 고통스러운 요즘이지만 이규옥 지점장은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서점들이 달라지길 바란다. '북 앤 리더스'가 시도한 변화가 낡은 것이라고 여겨질 만큼 참신한, 진짜 서점다운 서점이 생겨나길 기대한다. 본래 서점은 수백만년에 달하는 인류의 긴 역사를 아우르고, 우주로까지 확장되는 거대한 공간을 안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북 앤 리더스'에는 서점의 미래가 흐른다.

— 이현주 기자

## 출판계 소식



지난 2월27일 열린 제51차 정기총회.

## 출판문화협회 정기총회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가 지난 2월 27일 출협 4층 강당에서 제51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본회에 들어가기 전에 서기·감찰·서명인을 각각 2명씩 선출했으며, 전년도 사업보고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지결산에 대한 보고 및 승인 절차를 밟았다. 기타 안건으로는 '서점의 할인판매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는 정진숙 협회고문, 임인규 전국회의원, 김낙준 한국출판금고 이사장, 김경희 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이창연 회장, 박기봉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 이원희 학승자료협회 회장 등과 회원사 대표 80여명이 참석했다.



출판문화학회 제7회 학술포럼.

## 출판문화학회 포럼

출판문화학회(회장 전영표)는 2월 26일 프레스센터에서 "뉴미디어 시대의 출판체계 연구"를 주제로 제7회 학술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3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 전회장이 <디지털 시대의 국제저작권 동향 연구>, 이기성 교수(계원조형예술전문대)가 <전자출판용 폰트 중 한글 쓰기체와 본문체에 관한 연구>, 주경환 강사(안양대)가 <전자출판시대의 컴퓨터 디자인이 잡지편집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2부에서는 이창경(신구전문대 교수)·부길만(동원전문대 교수)·김만식 강사(한양대)가, 3부는 신태섭 강사(성균관대)가 각각 발표했다.